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이해와 실천

- 가톨릭종교교육의 맥락에서 -

김경이* · 임숙희** · 김율옥***

가톨릭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성심여자고등학교

【요약】

본 연구는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토대로 가톨릭 종교교육에서의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한다. 가톨릭에서 자기발견이란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느님과 관계 안의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하는 데 토대를 둔다. 자기발견은 돌봄의 첫 단계이며 돌봄은 인간 소명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돌봄의 대상에는 자신과 이웃 그리고 자연 생태를 포함한다.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가르침을 토대로 할 때 가톨릭종교교육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고유성을 가진 사랑받는 존재로서 학생 인식하기가 교육의 출발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자기발견을 위한 가톨릭영성교육, 돌봄의 대상과 그 책임을 교육내용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창조성을 담은 새로운 언어로 가톨릭 인간이해를 가르치기,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의 활용, 환대받는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기 등이다. 넷째, 종교교육자의 역할에서 자기발견의 방향을 이끄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 자기발견과 돌봄의 가톨릭 종교교육

*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주저자, clara90@catholic.ac.kr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공동저자, regina7113@daum.net

***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성심수녀회 수녀, 공동저자, kimyulok@hanmail.net

I. 서론

자기발견을 위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는 오래 된 철학적 탐구 주제이고, 종교적 가르침을 이끄는 질문이다. 나아가 현대인의 자기개발과 리더십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교육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며,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최근 중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자유학년제와 진로진학 상담과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소홀해진 자신에 대한 삶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담고 있다. 진로교육이 직업 탐색과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신에 대한 삶도 직무 수행과 관련한 소질과 적성 탐구에 국한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삶에 주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반적인 교육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은 철학과 심리학의 인간 이해에 기초를 둔다. 철학적으로 자기발견과 돌봄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해석으로 이해된다. 자기발견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확인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루소는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돌보는 것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¹⁾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창우에 의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철학적 사고 혹은 사유를 통해 삶과 인간, 자아 등에 대한 지식을 쌓고 사변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물질세계에서 벗어나 심성의 근원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심성을 닦아서 참된 자아로 돌아가기 위함이다.”²⁾ 나는 누구인가라는 “일차적 물음”³⁾은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 인간은 왜 인간인가? 나의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였고, 지금 누구이고, 앞으로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이차적 질문으로 이어진다.⁴⁾ 그런데 이차적 질문을 하면 할수록 철학적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심리학적 접근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은 교육 목표와 가능성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아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론은 자아정체성

1) Rousseau, Emile, 민희식, 『에밀』(서울: 육문사, 2006), 492-495쪽.

2)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15), 159쪽.

3) 위의 글.

4) 위의 글.

과 관련하여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은 역할 혼란을 극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즉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⁵⁾ 에릭슨은 이 때 개인을 움직이는 내면의 인식 주체인 자아는 기존에 형성되어온 개인적 자아정체성과 새롭게 요구되는 공동체적 자아정체성 사이에서 내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쓰게 된다고 하였다.⁶⁾ 이 점에서 에릭슨이 이해하는 자아정체성은 자기 안의 내적균형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자하는 내재적 힘⁷⁾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자신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이해는 자아정체성이 성찰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철학과 심리학은 물론 교육학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받는다. 그에게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행위체계의 연속성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찰적인 활동 속에서 일상적으로 창조되고 지속되는 것”이다.⁸⁾ 자아정체성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을 돌보는 힘을 키워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발달 과정은 교육적 의미를 가지며,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보도록 돕고 이 과정을 겪어내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학교교육을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을 종교적으로 접근할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신앙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이들은 자기발견과 돌봄을 단지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뿐,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오랜 지혜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하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접근은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는 교과와 교육활동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종교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인간 존재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함께 하는 이웃과 생태 환경을 돌봐야 하는지를 접하는 것은 의미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종교, 특히 가톨릭 종교를 배경으로 인간의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가톨릭교육에서 인간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과정

5)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송제훈, 『유년기와 사회』(고양: 연암서가, 2014), 319- 322쪽.

6) 위의 글, 236-237쪽.

7) 이 점에서 송슬기는 자신의 글에서 에릭슨이 제시하는 심리적 자아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적인 활동을 하는 주제, 다른 말로 ‘욕구충족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송슬기, 「자아정체성 교육의 철학적 접근: 찰스 테일러의 자기진실성 개념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15), 12쪽.

8)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1991), 52쪽.

에서 지닌 근원적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 하는 질문의 기초로서 자기발견과 돌봄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톨릭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겠다.

II.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

1. 자기발견

1) 성경에서의 자기발견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교 신앙공동체에서의 교육을 제외하고 성경을 교육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써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⁹⁾ 물론 오늘의 시대와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놓던 과거 시대의 교육 목표와 교육학 사이에는 거리가 있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인간학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성경은 종교교육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이라는 주제에 대한 교육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¹⁰⁾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자기발견(self-discovery), 자신의 정체성 발견에 대해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학처럼 자기발견의 토대가 인간이 자신이나 타인,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외부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느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성경 안에서 자기발견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점이다. 성경에서 자기발견의 출발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¹¹⁾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의 이야기 순서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 창조의 절정에 해당하며, 창세기 1장 26-28절에서는 인간을 하느님의 대리자로 묘사한다.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 모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작품에 들어있는 표현에 비추어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임금을

9) 교육을 위한 매뉴얼로써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로마 교황청 성서 대학원 개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논문: G. Geiger, “La Bibbia come manuale di educazione”, *Settimana Conclusiva dell'Anno Conclusiva dell'Anno Centenario del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10.5.3.-8), 2010, 1-15 참조.

10) 임숙희, 「교육자 바오로의 페다고지와 교육 영성」 『神學展望』 193호(광주가톨릭대학교신학연구소, 2016), 5쪽.

11) 창세기 1,26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 신앙으로 묘사하는 것과 관련된다. 창세기 저자는 고대 근동의 이런 사고에 영향을 받아 하느님이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창조된 것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임을 가르친다. 동시에 인간은 하느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리하는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¹²⁾ “우리과 비슷하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모습”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하느님을 완전히 그대로 복사한 존재가 될 권리가 없다고 보는 데 그것은 인간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느님을 닮았을 뿐이기 때문이다.¹³⁾ 하느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교의는 성경 시대 이후 교회의 교부(敎父)들이 펼친 인류학의 토대를 이룬다. 많은 교부들은 인간의 하느님 모상성을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¹⁴⁾ 그렇다면 하느님의 모상성 때문에 인간이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거룩함과 완전함을 향한 여정은 종말에 가서 완성된다고 한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영예를 받지만,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종말 때까지 그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닮기 위해 매우 성실히 노력함으로써 스스로 (하느님과) 비슷해져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함에 이르는 가능성은 ‘모습’이라는 영예를 통해 처음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사람은 종말에 이 행위를 성취함으로써 스스로 ‘비슷함’을 이루어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¹⁵⁾

둘째, ‘하느님이 믿는 이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 토대를 둔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인은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요한 10,11)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비밀을 발견한다(필리 2,6-8 참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회 환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부

12) Pasquetto, V, *Chiamata a Vita Nuova: Temi di Spiritualità Biblica. I Antico Testamento*,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2), 19-21쪽.

13) 앤드루 라루스 엮음, 토머스 C, 오든 책임 편집,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하성수,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약성경 I. 창세기 1-11장, (왜관: 분도출판사, 2008), 82쪽.

14) 위의 글, 79쪽.

15) 위의 글, 82쪽.

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자기 발견은 삶의 지혜의 시작이며 변화나 재탄생의 시작인 것이다.

셋째 ‘믿는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이다.’라는 점이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갈라 3,26-28 참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를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정체성이 현세에서는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믿는 이는 하나님 자녀이므로 새로운 피조물이고(2코린 5,17),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처한다(1코린 3,16). 나아가 믿는 이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지체다(1코린 12,27).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 외에 믿는 이는 성도(聖徒)다(에페 1,1). 하나님 자녀라면 또한 하나님 영광의 상속자,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의 공동 상속자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본다(로마 8,17; 에페 2,6 참조).

또한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믿는 이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라는 표현은 믿는 이들의 실존을 변화시키고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근본 요소이다. 믿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신앙인의 여정의 시작이며 믿는 이 안에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간다.”¹⁶⁾ 하나님 자녀는 또한 하늘의 시민이며(필리 2,30; 에페 2,19; 1베드 2,11) 하늘의 시민답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믿는 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의 사절이다(로마 6,18,22; 2코린 5,18-20). 믿는 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선 안에서나 악 안에서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믿는 이는 자신의 삶으로 영적 제사를 바치는 존재다(로마 12,1-2 참조).

이와 같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정체성은 “하느님 모상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빚어가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 달려있게 된다.

2) 교회의 가르침에서 자기발견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발견의 요소들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안에도 계속해서 등장한다. 2008년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그리스도인 행동의 성경적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16) 임숙희,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서울: 성서와 함께, 2019), 158쪽.

『성경과 도덕』(Bibbia e Morale)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여섯 가지로 소개한다. ① 이성, 곧 창조된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과 의무 ②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능력과 의무를 내포하는 자유(창세 2장) ③ 지도적 위치.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하느님의 통치 아래 있음 ④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는,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 ⑤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또한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인 인격의 존엄성(창세 2장) ⑥ 인간 생명의 거룩함¹⁷⁾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매력적인 특징으로 본다.

“교리교육의 핵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인물, 성부의 외아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분 말입니다 … 교리교육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여 하느님의 영원하신 계획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426항).¹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에서 신앙과 이성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앙과 이성은 인간의 영이 진리의 관상을 향하여 일어서는 두 개의 날개이다. 진리를 인식하려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려는 갈망을 인간 마음 안에 놓은 존재는 하느님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에 관한 충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탈출 33, 18; 시편 27 [26], 8-9; 63 [62], 2-3; 요한 14, 8; 1 요한 3,2).¹⁹⁾ 가톨릭의 많은 영성가들이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영성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중지식”(dual knowledge)이라고 부르는데 이중지식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닮을수록 더 참된 자신이 된다. 자기발견은 소명인데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운명과 소명을 실현하는 데로 이끌어간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에 일어나는 자아의 변형(transformation)이다. 자아가 물론 하느님은 아니지만 자아는 인간이 하

1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과 도덕』(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25-26쪽.

1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188쪽.

19)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http://www.cbck.or.kr/Documents/K5150/400106?gb=title&search=%EC%8B%A0%EC%95%99%EA%B3%BC%20%EC%9D%B4%EC%84%B1>

느님을 만나는 장소다. 참된 자기발견은 영성 생활을 활기 있게 하고 하느님이 의도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문을 개방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창조주인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참행복에 대한 소명 안에서 완성된다. 인간은 자신을 형성하고 내적으로 성장한다. 인간은 육체적 생활과 영적 생활 전체를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로 삼는다”(1700항).²⁰⁾

성경에서는 자기발견이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우리의 선호나 사고에 따라 자기발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뜻인지에 대해 아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길이며 신앙과 이성인 이 여정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돌봄

1) 성경에서의 돌봄

성경에 의하면 돌봄²¹⁾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돌보심에 내어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서 돌봄은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하느님 행위의 특성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돌봄을 체험했고 이 체험에서 계약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하느님의 돌봄을 신뢰하게 된다. 구약의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하느님의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시편²²⁾에는 하느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소개한다. 즉 하느님은 인간이 피곤할 때, 절망할 때, 고통에 빠졌을 때, 원수에게 공격당할 때 인간을 돌보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649쪽.

21) 돌봄으로 번역되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스어 단어는 명사 “merimna 메림나”(동사 “meromnao 메림나오”)이다.

22) 시편 1편; 12편; 14편; 139편 등

구약에서 다루어진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돌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장되고 절정에 이른다. 즉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생애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어린 돌봄을 이야기한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로써 살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돌봄’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먼저 예수의 자기돌봄은 아버지와 맺는 깊은 친교에 바탕을 둔다. 예수가 짧은 시간에 자신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면서 자신을 잘 돌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자기돌봄은 이기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자세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느님의 돌봄에 맡겨져 있다고 자주 가르쳤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리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쳤고 이것을 이상적인 제자의 삶으로 소개하였다.(루카 9,23 참조) “자신을 버리라”는 말은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확신의 절대적인 갈망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 “나”를 중심에 두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에 충실한 삶에서 비롯될 수 있는 어려움을 날마다 지라는 것이다. 삶을 경시하라는 것이나 금욕적인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제자들이 은총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여정의 전망을 자기 것으로 하라는 초대, 자신의 삶 안에서 그것을 현실화하라는 초대이다. 자신 안에 갇히지 말고 하느님의 전망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루카복음서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 사마리아인은 타인을 돌보는 삶의 전형을 보여준다.(루카 10,29-37)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울 기회와 그 도움에 참여하는 책임을 물리치지 않았다. 성경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소개된다.

성경에서의 돌봄의 대상은 인간에게로 제한되지 않는다. 피조물을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인간의 첫 의무처럼 소개된다(창세 1,26-28 참조).

2) 교회의 가르침에서 돌봄

가톨릭교회는 돌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소명이자 훈련해야 할 덕으로 가르친다. 돌봄에서 자기돌봄과 이웃돌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자기발견이 창조주와의 관계에 토대를 둔다면, 하느님이 우리 몸, 정신과 영혼을 창조했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그분에게 속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돌봄은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맡겨진 청지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문헌과 신학자들이 제시한 돌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은 다른 그리스도교 덕목처럼 훈련해야 할 “덕”이다.²³⁾ 미국 윤리 신학자 케에난(James F. Keenan)은 돌봄을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덕 가운데 하나로 열거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근본적인 덕을 “신중함, 의로움, 절제, 인내”로 정의한 바 있는데 케에난은 우리가 자신을 돌보도록 불리웠으며 이것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으로 제시한다. 자기돌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배우는 것,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습관화된 덕이다. 자기돌봄은 필요한 도움을 언제 청하고 언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과 여가, 사회활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기돌봄은 성찰을 통한 식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그러므로 돌봄의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다. 돌봄 가운데 특히 자기돌봄은 일상 안에서 자신을 대면하는 식별 훈련인 성찰 훈련을 필요로 한다. 가톨릭 영성가인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는 “만사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라”라는 좌우명을 남겼다. 이냐시오가 택한 영신수련은 가톨릭교회에 “성찰기도”라는 보물을 남겼다. 일상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없지만 성찰 안에서 돌아볼 때 “고요 속 온전한 돌봄의 행위들로 표현된 사랑의 일상”²⁴⁾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기도는 마음 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역사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성령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쓰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행하는 매일의 짧은 성찰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우리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 안에서 주님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을 인식하는 능력이다.”²⁵⁾

성찰기도는 하루 동안 ‘방문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들에 대한 내적인 이야기에 감사하며 주목하여 바라보는 마음을 훈련시킨다.²⁶⁾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일

23) James, F. Keenan, S.J. “Proposing Cardinal Virtues,” *Theological Studies* 56(1995) 709-729. 특히 723. 참조: A.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81).

24) 마시모 팜팔노니, 최현순 옮김, 『양심성찰과 실재에 대한 시적인 주목』 예수회, 『치빌타 카톨리카』, 2018년 봄, 27(서울: 도서출판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https://laciviltacattolica.kr/wp-content/uploads/2018/03/civiltacattolica0501.pdf>

25) 위의 글, 29-30쪽.

26) 위의 글, 31쪽. “하느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인격적 공간을 회복하려면,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출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어찌 깨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간을 찾는 일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언제나 보람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참된 자아를 만나고 주님께서 돌아오시게 해야 할 것

상의 성덕을 다룬 문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에서 하느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돌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²⁷⁾ 성찰 기도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길이자 돌봄의 길이다.

셋째, 돌봄은 자기 증여와 연결된다. 우리 시대의 생활 방식은 이웃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더욱 많은 거리를 창조한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멀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가? 교회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성실한 자기 증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 신학(Theology of Body)에서는 인간의 몸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가르친다. “자기증여는 그리스도교의 특별한 요청이 아니다. 자연/본성(natura)의 외침이다. 모든 인간의 몸, 특히 성별(聖別)된 몸은 이미 자연적 차원에서 자기증여라는 혼인적 언어 곧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위는 피확성애적 자기부정이나 자기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너희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벗어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증여 행위는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확장해가는 것을 함의한다. 즉, 자기 자신의 충만한 실현을 말한다.”²⁸⁾

넷째, 돌봄은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에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곧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하였다.²⁹⁾ 교황은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에 대해 성찰하고, 생태 교육과 영성에 대해 제안한다. 이런 생태 교육은 다른 이들과 자연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이기도 하다.³⁰⁾

요약하면 가톨릭에서 돌봄은 자기발견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발견은 돌봄의 첫 단

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섬뜩한 유혹의 심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철저한 절망의 벼랑 위에 서 있는 현기증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또는 완전히 혼자 버려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27) 교황 프란치스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 현대 세계의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29항.

2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하느님 계획 안에 인간 사랑 II, - 요한 바오로 2세의 ‘몸 신학’』(과주: 사람과 사랑, 2015), 23쪽.

29)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30) 위의 글 208항. “우리는 지금도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자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에 무관심하며, 우리 주변의 고통이나 환경 악화를 막으려는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형태의 자기중심성과 자아도취를 거부하는 자기 초월의 근본적인 자세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모든 관심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또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모든 행동과 모든 개인적 결정의 영향을 숙고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불러일으킵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대안적 생활양식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게인 것이다. “돌봄”은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차원인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봄을 통해서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타인들과 하느님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³¹⁾

Ⅲ. 자기발견과 돌봄의 교육

가톨릭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의 의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가톨릭학교는 가톨릭의 복음적 가치를 세상 안에서 펼치는 ‘교회 기관’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가톨릭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학생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종교적 이유로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종교교육의 목적을 가톨릭 신앙인을 기르는 데 둘 수 없다. 따라서 종교교육자들이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는 가톨릭학교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복음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서 교육할 것인가이다.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을 교육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의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이라는 상황에서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의 출발에서

1)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에 대한 인식의 공감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선언으로써 실천을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제안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교육 실천의 첫 번째 제안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시작이자 교육과정 개발의 토대(platform)를 다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안하는 워커(Walker)에 의하면 토대란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이 가진 교육적 강령으로써 교육에서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신념, 존재하는 실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신

31) A. Gaino, S. De Guidi (a cura di), *Prendersi cura. Di sé, degli altri, di Dio*, Verona: Il Segno dei Gabrielli editori, 2004. 이 책은 ‘돌봄’에 대하여 철학적, 신학적, 사목적 입장에서 논한 것들을 모은 논문 모음집이다. 이태리 베로나 교구의 시노드에서 “돌봄”을 주제로 성찰한 것을 모은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반적인 교육 안에 “돌봄”이라는 주제를 중요한 주제로 보고 있다.

념, 교육에서 바람직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된다.³²⁾ 곧 교육자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 입장이고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자기발견과 돌봄의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기회는 많지 않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점수 경쟁이 치열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고등학교제도, 교육과정,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문화에 변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핵심 역량³³⁾에 포함되는 ‘자기주도성’, ‘사회적 및 다문화적 상호작용’, ‘리더십’, ‘책임감’ 등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기이해와 발견, 배려와 공동체성의 가치 등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역량이 곧 자기발견과 돌봄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자기발견과 돌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는 교육 가치를 표현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의 공유를 돕고 교육활동 간의 연계를 촉진한다. 따라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고유성을 가진 사랑받는 존재로서 학생 인식하기

가톨릭교회의 여러 문헌에서는 교회가 인간 문제에 있어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³⁴⁾ 이는 가톨릭 교육자에게 특히 강조되는 바이다. 가톨릭의 자기발견과 돌봄을 교육에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자들이 가톨릭 인간관에 대한 이해

32)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서울: 학지사, 2011), 178쪽.

33) 진미석 등(2011)에 의하면 역량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 의사소통, 글로벌 역량 등이 핵심역량에 포함된다.[진미석, 손유미, 주희정, 「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29(4),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461-486쪽.] 「21세기 핵심 역량」에서는 ‘학습과 혁신을 위한 스킬’(전문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과 협동, 응용 상상력 및 발명을 의미하는 창의성과 혁신), ‘디지털리터러시’(정보, 미디어, 정보통신 기술 활용), ‘직업 및 생활 스킬’(유연성 및 적응력, 진취성 및 자기주도성, 사회적 및 다문화적 상호작용, 생산성 및 책무성, 리더십 및 책임감)을 들고 있다.[Bernie Trilling & Charles Fadel,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한국교육개발원 옮김, 『21세기 핵심역량』(서울: 학지사, 2009)]

34) 조정환, 「현대 가톨릭교회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171호(광주: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1)

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인식해야 한다.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사목헌장』³⁵⁾은 “인간에 대한 교회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시작한다. 문헌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인간이 갖는 하느님의 모상성이다.³⁶⁾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 안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준다. 이는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느님께 의존한 관계에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봉헌하도록 창조되었다.”³⁷⁾

이러한 인간이해를 교육자로 하여금 학생을 인식하는 데 있어 학생 각자의 고유성과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 존중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선발을 염두에 두는 성취도 평가에서 교육자들이 개별 학생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을 굳건히 지키며 교육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기발견과 돌봄의 교육 실천에서 교육자들의 학생 인식은 교육 공간의 분위기 즉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 교육내용

1) 자기발견을 위한 가톨릭영성 교육

가톨릭 인간관을 토대로 하는 교육은 그 실천에서 영적 존재로서 자기발견을 돕는 교육과 만나게 된다. 하느님과 관계 안의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발견에서 영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 접근 즉 영성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날 영성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던 종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종교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종교의 수양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가톨릭학교의 영성교육은 어떤 영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가?

35) 현대 가톨릭교회의 사목 방향 설정의 토대가 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문헌 가운데 하나인 『사목헌장』은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조정환,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15호(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73쪽.

36) 위의 글, 80쪽.

37) 『가톨릭교회교리서』 67항.

오늘날 영성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 전통을 따르는 영성교육이 있는가 하면 종교 전통 밖에서 혹은 배제하고 영성을 논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 내부적 관점의 영성교육 형태는 본래적으로 교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지만³⁸⁾ 블레이크(Nigel Blake)는 종교 전통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성교육이 내부적 관점의 영성교육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영성은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영향 밖의 영성은 다양한 형태를 띠어 그중 몇몇은 분명한 형태와 구조가 없는 것도 있다. 이는 영적 발달의 명확한 준거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³⁹⁾ 그는 종교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내부적 관점은 그렇지 않은 외부적 관점의 종교·영성교육이 갖는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한 가지 특정한 종교적 영적 관습과 연결된 교육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부적합한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자율성 개념을 더 적게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통을 이어온 종교는 종교 신앙에 대한 이성적 고찰을 거둬들여 왔음을 전제로 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둘째 “내부적 접근은 영성이 어느 정도 발달했고, 발달의 목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을 이어온 종교 영성은 그 영성에 따라 종교인을 양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발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특정 종교적 영적 전통에의 참여는 적어도 한 가지 전통의 기초를 이루는 철학적 가정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체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기본적인 철학적 가정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교육 형태를 경험하는 사람들 보다 종교적 영적 영역의 적합한 철학적 가정의 성격에 관해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넷째 “분리된 종교계 학교는 특정 삶의 관점과 가치관을 일관되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⁴⁰⁾

한국 교육에서는 내부적 관점의 영성교육과 종교교육이 자주 논쟁이 되고 있지만 미국 가톨릭학교들의 경우 공립학교보다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성을 준비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다.⁴¹⁾ 이를 근거로 내부적 관점의 영성교육을 무비판적인 고백주의와 구분할 수만 있다면 시민으로서의 학생들이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톨릭학교에서 내부적 관점으로 영성교육을 하는 것은 자기발견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얻는데 보다 유리

38) Nigel Blake 외,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ilosophy*, Hanan Alexander & Terence H. McLaughlin, 강선보 외, 『현대교육철학의 다양한 흐름』, 정윤경 옮김, “종교 및 영성 교육”(서울: 학지사, 2009), 363쪽.

39) 위의 글, 346쪽.

40) 위의 글, 362-363쪽.

41) Bryk, A. S, Lee, V. E. & Holland, P. B,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93)

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수도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카리스마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전통적인 영성교육과정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기

가톨릭의 자기발견은 타인을 형제처럼 돌보라는 임무로 이어진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가깝게 이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무관심의 세계화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기적인 이 이상을 좇고자, 사람들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펼쳐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서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고통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그들을 도울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⁴²⁾

과연 타인의 고통은 우리와 무관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자기 자신에게도 멀어지게 된다. 교육이 기술을 기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을 낳는 풍요로움이라 할 때 돌봄에 대한 교육이 자신만의 돌봄으로 국한 될 수 없다. 또한 “교육은 온전히 개인적인 현실이 아니고 공적 현실이다. 교육은 자기 역량을 기를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공동의 역사를 만들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⁴³⁾는 점을 고려하면 하느님과 관계 안의 존재로서 사회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이해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생태 환경에 대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상 안의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3. 교수방법론적 접근

42)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54항.

43) 안토니오 스파다로, *Sette Pilastri Dell'Educazione Secondo*, 김민, “베르골료가 말하는 교육의 일곱 기둥”, 예수회, *La Civiltà Cattolica*, 4037 III(1 settembre 2018), 343-357. <https://laciviltacattolica.kr/1402-2/> 2쪽.

1) 창조성을 발휘한 새로운 언어로 가톨릭 인간이해를 가르치기

오늘날 가톨릭 교육이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이다.”⁴⁴⁾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육론인 『베르골료가 말하는 일곱 기둥』⁴⁵⁾에서는 변화하는 인간이해를 마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창조해 온 인간이해와 교회가 사용한 언어는 분명한 토대가 있으며, 지혜와 오랜 경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교회가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달리 이러한 인간이해와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종교적인 언어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것은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다르지 않다. “튼튼한 전통을 토대로 하지만 창조성”⁴⁶⁾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강요와 가르침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교회교리서』356항에는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인간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 때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가톨릭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삶에서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참여라는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의 활용

최근,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과정의 주체로서 수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을 혁신적 교육의 과제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기발견의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므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교육자의 과업이다.

질문을 활용하는 것은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법 가운데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통해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실 수업에서 대부분의 질문은 정답과 오답

44) 위의 글.

45) 위의 글.

46) 교황 프란치스코, 박준양, 조재선, 『삶을 살리는 교육』(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53쪽.

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하게 하는 질문도 해야 한다.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생각하는 시간도 주어야 한다.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생각할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생각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⁴⁷⁾

3) 환대받는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기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한다. 이야기는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는 유용한 과정이다.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면서 시작 할 수 있다. 삶의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각과 가치와 의미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기는 표현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교육에서 활용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다른 사람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로 나눌 수 있다.

(1)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야기는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삶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 과정이며,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자신이 가진 두드러진 가치가 표현된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요되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환대받는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교육을 실천하는 공간에는 물리적이고 정서적으로 모든 학습자를 환대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첨단 교육 기자재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를 환대하는 교육환경이다. 좌석 배치, 학습자의 규모, 조명, 청결함 등과 같은 물리적인 안락함과 더불어 개방성과 돌봄의 분위기, 공동체적 분위기, 수용과 신뢰와 같은 정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기발견의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교육자에게는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야기 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 외에도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는 적절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성찰을 돕는 도구로써 영화, 그림, 시, 그림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47) 하영유, 「침묵의 의미와 주체성 형성」(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18), 19쪽.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발견을 위한 활동이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돌봄을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능력으로써 ‘서사적 상상력’⁴⁸⁾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어내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질만한 감정과 소망과 욕망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무비판적인 동일시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책임 있는 판단 행위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설명한다. 이는 문학작품을 읽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 그들의 관점으로 삶을 이야기 해 보는 것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4. 종교교육자의 역할

이태리 학자 프랑코 콤비(Franco Combi)에 따르면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을 깨어있는 자이자 안내자로서 이론과 실천을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자신의 실존, 영혼 상태, 성격, 운명을 지키는 것이다.”⁴⁹⁾ 이런 관점에서 자기돌봄은 교육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주제가 아니라 교육 과정을 설정하기 위해 교육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개념이다.⁵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교육자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돌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latone, *Apologia di Socrate*, 30b).⁵¹⁾

교육자의 역할이 이것이라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교육과정과 자기를 돌보는 훈련은 반대되는 것인가? 교육이란 정보를 모으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교육은 인생 자체의 의미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탐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불리운 자신의 소명, 인간으로서 자신과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자기 발견과 하느님 발견이다. 교육자는 학습자에게 더욱 좋은 자료, 더욱 좋은 교육을 통한 자기 돌봄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자신을 쇄신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쇄신할 수 있다.

48) 마사 누스바움, *Cultivating Humanity*, 정영목, 『인간성 수업』(파주 : 문학동네, 2018), 29-31쪽.

49) Cambi, F, *L'autobiografia come metodo formativo*(Laterza, Roma-Bari, 2002), 119쪽.

50) Mortari, L, “Conoscere se stessi per aver cura di sé,” *Studi sulla formazione*, 2, 2008, 45-58쪽. 특히 47쪽.

51) 참조: Platone, *Platone. Tutti gli scritti*, Bompiani, Milano 2000.

“교육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⁵²⁾ 돌봄의 첫 번째 걸음은 자기발견이고 자기발견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변화(transformation), 재탄생(rigenaration)의 시작이며 생애 전체를 건 여행,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다. 교육자가 이것을 강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할 수 있을 뿐이다. 교육자가 “경작해야 할 것은 ‘자기교육의 힘’이며 그 사람이 가치 실현을 위해 자신을 개방하도록 재촉하는 것이다.”⁵³⁾

자기발견과 돌봄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써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학교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잠재적인 교육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인성교육과 가치교육에서 특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교육 경험을 일부 교과에만 맡겨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종교교육자들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이 언어를 공유하고, 계기가 있을 때 마다 학생들이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 론

가톨릭교회에서 돌봄은 소명이자 훈련해야 할 덕이다. 돌봄의 첫 단계는 자기발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배워야 할 삶의 기술이며 곧 영성이라 할 수 있다. 삶은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교과서다. 인간이 온전한 의미에서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으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첫 걸음이다.

하지만 돌봄의 첫 단계인 자기발견의 여정은 항상 쉽지 않다. 항상 아름답지도 않다. 그래서 그 과정을 도피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에서 도피는 무기력, 영적 졸음으로 가는 최상의 길이다. 참된 돌봄은 자기발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될 때 가능할 것이다. 생애 매 단계에서 의식적인 자기돌봄 훈련을 통해서 평화로운 인간, 자신과 평화를 이룬 인간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

52) Mortari 위의 글, 47쪽.

53) E. stein, *Introduzione alla filosofia*, Città Nuova, Roma 2001 (tit. or.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In *Edith Steins Werke*, vol. XIII, Verlag Herder, Freiburg 1991), 196쪽.

는 첫 번째 걸음이다. 자기 돌봄은 진정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가톨릭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자 양성 과정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의 존재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생태환경과 세상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의 전통으로 부터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교육의 출발에서 교육자의 인식,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가톨릭 영성교육의 가능성과 돌봄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인간이해에 대해 변화하는 관점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위해 삶의 구체성을 담은 창의적인 언어로 가르치기, 자기발견과 돌봄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질문의 활용, 이야기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자기발견과 돌봄은 교육의 본래적 내용이자 목표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학생들이 자기 삶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고유성을 찾아가는 교육, 자기돌봄이 타인돌봄과 병행할 때 진정한 자기돌봄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가톨릭 종교교육 뿐 아니라 다른 종교의 종교교육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역할들이 수행되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학교 종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자기발견과 돌봄의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종교 전통을 배경으로 한 교육의 깊이와 지속성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교황 요한바오로2세, 『신앙과 이성』,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 교황 요한바오로2세,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 사랑 II-요한 바오로 2세의 ‘몸 신학’』, 파주: 사람과 사랑, 2015.
- 교황 프란치스코, 박준양, 조재선, 『삶을 살리는 교육』,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마사 누스바움, *Cultivating Humanity*, 정영목, 『인간성 수업』, 파주: 문학동네, 2018.
- 마시모 팜팔노니, 최현순, 「양심성찰과 실재에 대한 시적인 주목」, 예수회, *La CICALTA CATTOLICA* 『치빌타 카톨리카』, 2018년 봄, 서울: 도서출판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 송슬기, 「자아정체성 교육의 철학적 접근: 찰스 테일러의 자기진실성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15)

- 안셀름 그린, *GIER*, 황미하, 『탐욕』, 서울: 바오로딸, 2019.
- 안토니오 스파다로, *Sette Pilastri Dell'Eduzione Secondo*, 김민, “베르골료가 말하는 교육의 일곱 기둥.” 예수회, *La Civiltà Cattolica*, 4037 III (1 settembre 2018), <https://laciviltacattolica.kr/1402-2/>
- 앤드루 라루스 엮음, 토머스 C. 오든,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하성수,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약성경 I. 창세기 1-11장, 왜관: 분도출판사, 2008.
- 임숙희,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서울: 성서와 함께, 2019.
- 임숙희, 「‘교육자’ 바오로의 페다고지와 교육 영성」 『신학전망』 193호(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6)
- 조정환,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고찰」 『인간연구』 15호(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 조정환, 「현대 가톨릭교회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171호(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2011)
- 진미석, 손유미, 주희정, 「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 Hanan, A. & Terence H. M., *Education in Religion and Spirituality*, 정윤경, 「종교 및 영성 교육」, Nigel Blake 외,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강선보 외, 『현대교육철학의 다양한 흐름』, 서울: 학지사, 2009.
- 하영유, 「침묵의 의미와 주체성 형성」(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1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과 도덕』,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 현대 세계의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11.
- Bernie, T. & Charles, F., *21th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한국교육개발원, 『21세기 핵심역량: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 서울: 학지사, 2009.
- Bryk, A. S., Lee, V. E. & Holland, P. B.,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93.
- Cambi, F., *L'autobiografia come metodo formativo*, Laterza, Roma-Bari, 2002.
-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송제훈, 『유년기와 사회』, 고양: 연암서가, 2014.
- Gaino, A., De Guidi S., (a cura di), *Prendersi cura. Di sé, degli altri, di Dio*, Verona: Il Segno dei Gabrielli editori, 2004.

-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1991.
- Mortari, L., “Conoscere se stessi per aver cura di sé,” *Studi sulla formazione*, 2, 2008.
- Pasquetto, V., *Chiamata a Vita Nuova: Temi di Spiritualità Biblica. I Antico Testamento*,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2.
- Platone, *Platone. Tutti gli scritti*, Bompiani, Milano, 2000.
- Stein, E., *Introduzione alla filosofia*, Città Nuova, Roma 2001. (tit. or.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In Edith Steins Werke, vol. XIII, Verlag Herder, Freiburg 1991)

원고접수일 : 2019년 6월 22일 심사일 : 2019년 7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20일

연구자 소개 : 김경이

- ① 전공 : 교육학 / 소속과 직위 :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② 관심영역 : 가톨릭교육, 가톨릭신앙교육, 평생교육, 교사교육.
- ③ 주요논저 : 『가톨릭신앙공동체 성인종교교육의 실천적 교육모델』, 『다문화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가톨릭교육의 역할』,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
- ④ E-mail : clara90@catholic.ac.kr

연구자 소개 : 임숙희

- ① 전공 : 성경, 영성신학 / 소속과 직위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 ② 관심영역 : 성경, 영성, 종교교육
- ③ 주요논저 :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 『교육자 바오로의 페다고지와 교육영성』, 『바오로의 식별의 관점에서 본 교구사제 영성』
- ④ E-mail : regina7113@daum.net

연구자 소개 : 김윽옥

- ① 전공 : 신학, 종교교육 / 소속과 직위 :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 성심수녀회 수녀
 - ② 관심영역 : 가톨릭교육, 종교교육
 - ③ E-mail : kimyulok@hanmail.net
-

Abstract

A Study on Self-Discovery and Care in Context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im, Kyungee · Lim, Sookhee · Kim, Yul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Sacred Heart Girls' High School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nt and methods of self-discovery and care education in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Catholic teaching on self-discovery and care. In Catholicism, self-discovery means that huma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at he understands himself as being in relation to God, and his discovery is the discovery of God. Self-discovery is the first step for care, care must be understood as a calling, and caring includes self, neighbors, and natural ecology. Based on the Catholic self-discovery and teaching of caring,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suggests that four things apply: First, empathy for the necessity of self-discovery and care education, and recognition of students as loved ones with uniqueness should be emphasized at the beginning of education. Second, Catholic spirituality education for self-discovery, the object of care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taught in educational contents. Third, teaching Catholic human understanding as a new language of creativity in terms of teaching methods, using questions that raise questions about oneself, and talking in a welcoming atmosphere. Fourth, we propose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religious educator as a guide to guide the direction of self-discovery.

Key words: Catholic self-discovery and care,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for self-discovery and care